

저는 전자와 후자의 말에 모두 공감합니다.

우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담배 또한 커피와 같은 엄연한 기호식품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므로써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흡연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긴장하거나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비흡연자는 담배를 일종의 기호식품으로 생각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흡연자의 담배를 피울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가 모두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 간접흡연자의 건강까지 해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산모가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산할 아이에게는 큰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들은 흡연자의 담배를 피울 권리와 다른사람의 건강과의 2개의 문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단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흡연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물내의 흡연구역의 설정과 금연건물의 설정등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흡연자의 담배피울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